“잠깐! 벌금 10만원 물고 담배 피우시렵니까?”

7월부터 식당·술집·카페 전면 금연 … 단속인원 부족 실효성 의문

7월부터 실시되는 ‘다중이용업소 전면 금연’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150㎡(45평) 이상 식당·술집·카페에 대한 흡연 단속이 실시되지만 단속 인원조차 없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다중시설의 흡연이 대세인 현실을 고려치 않은 데다 흡연권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의 경우 여기에 포함돼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만 1만 1886개소에 이른다. 단속 유예 대상 업소인 PC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3355개소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단속 과정에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는 업주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50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등은 주로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여부와 현장 흡연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각 구청의 경우 담당자 1~2명이 단속 뿐 아니라 금연 기획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예산상의 문제로 단속 보조 인력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흡연 구역이던 술집, 음식점 등의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자칫 업주, 고객과의 다툼의 여지도 있는 실정이다.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은 ‘강압적 정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구청에 단속 인력 및 홍보 대책을 세울 것을 전달했다” 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공사장 붕괴로 갇힌 인부 4명 모두 구조

광주 광산구 월계동 … 콘크리트 상판 무너져

광주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구조물 더미에 갇혔다가 모두 구조됐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일 오전 1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E주상복합(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4262.50㎡) 신축 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을 하던 인부 김모(57)씨 등 4명이 구조물 더미에 갇혔다.

소방당국은 25t·50t급 크레인을 동원, 매몰된 인부 김씨 등 3명을 5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했다. 현재 이들은 첨단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지하 주차장 램프(ramp·경사로) 위에 위치한 2층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작업 중 콘크리트 상판을 지탱해주는 지름 6㎝ 크기의 철재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시공사가 철재 지지대를 세우면서 설계대로 설치했는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적정한 관리 감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시공사인 I토건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장 조사에 착수, 현장 인부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3월 9일 목수 박모(55)씨가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자살한 바 있다.

한편, E주상복합은 내년 5월 30일 완공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298세대·오피스텔 52세대 등 모두 350세대가 들어선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공사장 거푸집 붕괴 사고

필사의 구조 6일 오전 1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E주상복합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광산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물 더미에 매몰된 인부를 구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충일 광주·전남, 화재 감전 사고 ‘얼룩’

현충일이자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6일 광주·전남에서는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새벽 0시 10분께 보성군 복내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이모(49)씨가 숨졌다. 마침 인근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주택 전체에 불이 번진 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나 이씨는 화재로 무너진 주택 지붕 가장자리에서 숨져 있었다. 불은 56㎡ 규모 집 대부분을 태워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진화됐다.

또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영암군 신북면 옹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 이모(38)씨가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옹기 가마의 과열로 불이 나 비닐하우스 지붕, 집기류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전 9시 20분께 완도군 신지면 모 수산물 가공업체 옥상에 설치된 변압기에서는 중국 국적 근로자 서모(48)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서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머리 부위의 출혈이 심해 헬기로 광주 전남대병원에 이송됐다.

오전 11시 40분에는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도로에서 박모(52)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2.5m 아래 논으로 떨어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씨의 아내(43)가 숨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

순천서 한밤 중 20대 여성 납치 신고…경찰 수사

순천에서 20대 여성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순천시 연향동 한 공원 앞길에서 윤모(여·25)씨가 군대 간 남자친구의 친구인 정모(26)씨 등 2명에게 한때 차량 납치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윤씨는 납치 도중 “배가 아픈데,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속인 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신 신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전날 밤 9시께 순천시 홍내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휴가 나온 남자친구에게 이벤트를 해주려고 한다는 정씨의 말을 듣고 집을 나섰다가 납치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2 접수 직후 현장에 곧장 출동했으나 정씨 등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범행에 사용된 렌트 카는 공원 화장실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윤씨는 조사 받은 직후 귀가했으나 집안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추가 신고했다.

경찰은 윤씨 등을 상대로 납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이 윤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 않은 점과 순순히 화장실에 보내준 점 등으로 미뤄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원세훈 전 국정원장 스폰서 황보건설 전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황보건설의 황보연 전 대표를 구속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4개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건넨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고속버스 옆좌석 가방 ‘슬쩍’

쌍나팔

○…20대 회사원이 고속버스 옆자리에 탔던 남성이 두고 내린 가방에 대한 ‘물욕’을 버리지 못해 경찰에 덜미.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황모(29)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20분께 서울발 광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탔던 박모(55)씨가 두고 내린 미화 130달러(한화 약 15만원)가 든 가방을 슬쩍 들고 내렸다는 것.

○…황씨는 경찰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버린 것인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